

# 진짜 '윈윈 트레이드' 위한 KIA, 선택·집중 필요하다

## 백용환 주고 내야수 강경학 영입



진짜 '윈윈 트레이드'를 위한 KIA 타이거즈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KIA는 지난 3일 한화 이글스와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포수 백용환(32)을 내주고 내야수 강경학(29)을 받아오는 조건이었다.

윌리엄스 감독은 이번 트레이드에 대해 "백용환, 강경학 두 선수 모두 커리어를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트레이드 자체로 보면 '윈윈'이다. 한화는 포수 이해창이 부상으로 빠진 뒤 최재훈의 백업 포수가 필요했고, KIA에서는 한승택·김민식 체제에 이정훈이 방망이로 제3의 포수로 떠오르면서 백용환의 입지가 좁아진 상황이었다. 올해로 14년 차가 된 백용환 입장에서는 '경기'가 중요했던 만큼 직접 트레이드를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올 시즌 3경기 출장에 그쳤던 백용환은 트레이드와 함께 4일 바로 엔트리에 등록돼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 한화 선수로 첫발을 내디뎠다. 강경학도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부는 한화에서 힘든 2021시즌을 보내고 있었다.

올 시즌 14경기에 나와 0.136의 타율에 그친 강경학은 2루 경쟁에서 정은원에게 밀리면서 지난 4월 25일을 끝으로 자취를 감췄다. 퓨처스리그에서도 5월 26일이 마지막 경기였다.

동성중·동성고를 졸업한 강경학은 '집밥'을 먹으면서 익숙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다. 매년 겨울이면 모교 동성고에서 훈련을 해왔던 만큼 강경학에게 광주, 그리고 KIA는 새 출발을 하기에 좋은 지점이 됐다.

일단 시작은 퓨처스리그다. 오랜 시간 재활·잔류군에 머물렀기 때문에 차분하게 경기를 하면서 몸을 만들 예정이다.

윌리엄스 감독도 "강경학은 내야 포지션을 다

소화할 수 있고, 스피드가 있고 1군 경험도 많다. 내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최근 한화에서 재활군, 잔류군에 있었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진짜' 윈윈 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내야의 교통정리와 경쟁이 필요하다.

KIA는 최근 몇 년간 내야수 수집에 공을 들였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외야수 박준태를 주고 키움 내야수 장영석을 영입했고, 지난해 6월에는 두산과 카드를 맞춰 투수 홍건희와 내야수 류지혁을 바꿨다.

8월에는 NC에 투수 문경찬·박정수를 주고 투수 장현식과 내야수 김태진을 영입했다. 9월에는 KT에서 웨이버공시된 내야수 김영환도 영입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부상과 부진으로 외부 영입 효과가 미미했고, 투수진 약화로 고전했다.

KIA는 2018년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도 최정용, 황윤호, 유민상 등 내야 자원을 씩씩이 한 만큼 내야는 포화상태다.

그렇다고 해서 KIA 내야 전력이 막강한 것도 아니다. 상대를 압도할 파워가 부족하고 그나마 김선빈이 체면치레를 해주고 있지만 '특급 선수'로 꼽을 만한 자원이 없다.

외부 영입 자원 활용도를 고민해야 하는 KIA는 미래 자원으로 언급해온 내부 자원의 육성도 신경 써야 한다.

'예비역'으로 돌아온 김규성과 함께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안치홍을 홀대하면서까지 대체자로 꼽은 박민과 홍중표도 KIA가 키워야 하는 자원이 다.

내야 교통정리와 함께 전체적인 전력 강화라는 고민도 풀어야 한다.

공들여 자원을 수집한 내야는 물론 외야 전력도 약하고, 투수 중심의 신인드래프트 일색이었지만 마운드에도 고민은 많다.

'무조건 영입'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빈틈을 채우고, 경쟁을 통해서 전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선수는 죄가 없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잉글랜드 골잡이 해리 케인이 4일 이탈리아 로마의 올림피코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와의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 8강전에서 첫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FC, 목포서 후반기 준비 '담금질'

광주FC가 목표를 반전의 무대로 삼았다.

광주 선수단은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전남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전지훈련을 갖는다.

A매치-ACL 휴식기를 보내고 있는 광주는 오는 21일 오후 8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강원FC와 20라운드 경기를 갖고 후반기 일정을 시작하게 된다.

'최하위 탈출'이라는 과제를 풀어야 하는 광주는 '조지력'과 '특정력'에 초점을 맞추고 전지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상 복귀자들의 컨디션 회복과 호흡 맞추기가 최우선 목표다.

이찬동, 두현석, 여병훈 등 주요 선수들이 부상에서 돌아온 만큼 전반기를 이끌었던 선수들과의 호흡을 재정비해야 한다.

공격수들의 세밀한 더하기도 중요하다. 광주는 전반기 19경기에서 17골을 만드는 데 그치면서 강연, 서울과 득점 최하위다.

매 경기 위력적인 유효슈팅은 만들었지만, 골대를 뚫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공격 훈련과

연계 플레이 훈련에 집중하면서 득점력을 높여겠다는 계획이다.

광주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위해 목포 전지훈련 기간 두 차례 연습경기를 통해 선수들의 손발을 맞추고, 화력 점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광주 김호영 감독은 "광주는 탄탄한 팀워크가 가장 큰 장점이다. 지금보다 더 조직적으로 하나가 된다면 더 편하게 경기를 진행할 수 있고, 체력도 아닐 수 있다"며 "두 번의 연습경기를 통해 공격 전개를 위한 빌드업, 1-2선 선수들간의 연계 플레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밝혔다.

'캡틴' 김원식은 "상대가 누구든 몰려서도 않고 탄탄한 경기력을 보였지만 흔히 말하는 '짚잘짜(짚지만 잘 싸웠다)'가 반복돼 선수단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지만 그 아쉬움이 동기부여로 자리 잡았다"며 "선수단 모두 그라운드에서 모든 걸 쏟아낼 준비가 돼 있다. 주요 선수들도 부상에 서 돌아온 만큼 후반기 반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전남드래곤즈, 공격수 김병오·미드필더 이석현 영입

전남드래곤즈가 자유계약으로 공격수 김병오(32)와 미드필더 이석현(31)을 영입했다.

측면에서 선이 굵고 힘 있는 플레이를 선보이는 김병오는 FC안양, 충주합맥, 수원FC, 상주상무, 부산아이파크를 거치며 K리그 통산 149경기에서 나와 19득점 11도움을 기록했다.

183cm·86kg의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저돌적인 돌파로 상대 수비수를 압박하며, 현재 전남 공격진과는 다른 스타일로 팀 전술 옵션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오는 "끈끈한 조직력을 가진 전남드래곤즈의 일원이 돼 영광이고 감사하다. 팀의 장점인 조직력을 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팬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2013년 인천유나이티드를 통해 프로 선수가 된 이석현은 입단 첫째 33경기 7득점 3도움으로 팀 내 최다득점을 기록하며 화려한 데뷔시즌을 보냈다. 2015년 FC 서울로 이적해 2선과 3선을 오가며 활



전남 유니폼을 입은 김병오(왼쪽)와 이석현.

약했지만 2018년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서 나서지 못했고, 이해 여름 포항 포항스틸러스로 이적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34경기에서 출전해 7득점 4도움을 기록했고, 2019년 여름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 후 파주시민축구단에서 선수 생활을 하며 팀의 첫 K4 우승에 이바지했다.

이석현은 공격형 미드필더부터 중앙 미드필더까지 소화 가능하며, 공수 양면에서 모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으로 평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케인 멀티골...잉글랜드 4강 '골인'

## 유로, 우크라이나 4-0 대승 체코 꺾은 덴마크와 준결승

'각성한 골잡이' 해리 케인의 멀티골을 앞세운 잉글랜드가 25년 만에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 4강 진출에 성공하며 29년 만에 '우승 트로피' 탈환을 노리는 '돌풍'의 덴마크와 결승 진출을 다룬다.

잉글랜드는 4일 이탈리아 로마의 올림피코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와 유로 2020 8강전에서 케인의 멀티골로 4-0 대승을 거두고 유로 96 이후 25년 만에 준결승 무대를 밟게 됐다.

특히 이번 대회 5경기와 앞서 치른 평가전 2경기까지 합쳐 7경기 무실점을 기록하며 잉글랜드 대표팀 역대 최다 '클린 시트(662분 무실점)' 기록도 달성했다.

잉글랜드는 이날 또 다른 8강전에서 체코를 2-1로 무너뜨린 덴마크와 오는 8일 새벽 4시 영국 런

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준결승을 치른다. 앞서 7일 새벽 4시에는 웬블리 스타디움에서는 이탈리아-스페인의 4강전이 먼저 치러진다.

조별리그에서 침묵했던 케인의 멀티골이 잉글랜드의 대승을 이끌었다.

잉글랜드는 전반 4분 만에 라힘 스텔링의 침투 패스를 받은 케인이 오른발슛으로 결승골을 터트리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정확하게 3분 32초 만에 득점을 터트린 케인은 유로 2004 당시 2분 25초 만에 골 맛을 봤던 마이클 오언에 이어 잉글랜드 대표팀의 유로 대회 역대 두 번째 최단 시간 득점을 기록했다.

전반을 1-0으로 마친 잉글랜드는 후반 시작 1분 만에 루크 쇼의 프리킥에 이은 맥과이어의 헤더로 추가골을 뽑아냈다.

기세가 오른 잉글랜드는 후반 5분 결승골의 주인공 케인이 쇼의 크로스를 또다시 머리로 방향을 바꿔 세기까지 책임졌다.

잉글랜드는 후반 12분 교체로 투입된 헨더슨이

그라운드를 밝은 지 6분에 메이슨 마운트의 코너킥을 헤딩슛으로 마무리하며 4-0 대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아제르바이잔 바쿠의 바쿠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8강전에서는 덴마크가 체코를 2-1로 꺾고 4강에 진출했다. 덴마크가 준결승에 오른 것은 유로 92 우승 이후 29년 만이다.

덴마크는 전반 5분 만에 코너킥 상황에서 토마스 델라니가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반칙 솟아올라 헤딩슛으로 선제골을 터트리며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전반 42분에는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골대 정면으로 쏘던 카스퍼 달베리가 오른발슛으로 결승골을 뽑아내 승리를 예감했다.

체코는 후반 4분 파트리크 시크의 추격골이 터졌지만 끝내 경기를 뒤집지 못하고 탈락했다.

시크는 이번 대회에서 개인 통산 5골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5골)와 함께 득점 공동에 올랐지만 둘 다 준결승에 나서지 못하는 불운을 겪었다. /연합뉴스

# 메시 맹활약...아르헨, 코파 4강 진출

## 에콰도르에 3-0 대승

아르헨티나가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의 맹활약에 힘입어 에콰도르를 꺾고 2021 코파 아메리카(남미축구선수권대회) 준결승에 진출했다.

아르헨티나는 4일 열린 대회 8강전에서 1골 2도움을 기록한 메시의 활약 속에 에콰도르를 3-0으로 물리쳤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한 번도 메이저 국가대항전 우승을 이룬 적 없는 메시의 활약을 앞세워 4강까지 순항한 아르헨티나는 우루과이를 승부차기로 따돌린 콜롬비아와 7일 브라질리아의 마네 가린샤 국립경기장에서 결승 진출을 놓고 격돌한다.

이번 대회 4강은 브라질-페루, 아르헨티나-콜롬비아로 압축됐다.

반면 에콰도르는 통산 세 번째 4강 진출을 노렸

으나 강호 아르헨티나의 벽을 넘지 못하고 돌아섰다.

전반 22분 페널티 지역 안 절호의 기회에서 왼발 솟이 골대를 맞히는 불운을 겪은 메시가 전반 40분 결승 골 도움을 시작으로 펼칠 날았다.

후반 39분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의 골에도 도움을 줬다. 이 골 역시 메시의 도움에서 비롯됐다.

후반 45분엔 에콰도르 수비수 피에로 잉카피에가 드리블 돌파하던 앙헬 디마리아를 잡아 넘어뜨리는 파울로 퇴장당하며 승부가 기울었고, 이어진 프리킥 상황에서 메시의 그림 같은 왼발 솟이 꽃이며 마침표를 찍었다. 메시는 이번 대회 4호 골을 터뜨려 득점 선두를 질주했다.

앞서 열린 8강전에서는 콜롬비아를 우루과이와 전-후반 90분을 0-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2로 이겨 4강에 합류했다.

/연합뉴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4일 열린 2021 코파 아메리카 8강전에서 에콰도르를 상대로 세 번째 골을 터뜨린 뒤 팀 동료 앙헬 디마리아를 껴안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